다자이후 덴만구의 변천

스가와라 미치자네(845-903)의 문하생이었던 우마사카 야스유키는 스승인 미치자네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905년에 미치자네를 모시기 위해 다자이후 덴만구의 원형이 되는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그후 수 세기에 걸쳐 화재,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대규모 수리를 통해 다자이후 덴만구의 형태와 규모가 변화했습니다.

다양한 그림과 지도에는 수년에 걸친 신사의 변화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덴(신사의 건물)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림지도는 1498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지만, 1294년의 문서에서 기록된 모든 건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문화재에 해당하는 그림 10은 17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신사의 경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제작된 것으로, 다른 묘사에서는 볼 수 없는 경내의 구층탑과 오층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덴(신을 모시는 건물)은 1591년에 지어졌으며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68-1603)의 건축을 대표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여 무로마치 시대(1336-1573)의 차분한 색조와는 사뭇 다른 변화를 보여줍니다.